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14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14회기, 청원시편, 시편 3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이 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그 파동이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귀에 도달하여 말과 생각을 형성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귀에 닿을 수 있고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어 영적인 것들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인지적 사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영에 도달하려면 성령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당신의 본문에서 영적인 말씀을 취하여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우리의 소중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서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송영을 다루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고 당신이 누구이며 행하신 일을 축하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그러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의 탄원을 듣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의 교훈을 듣고 책망을 받고 배우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창조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당신 백성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며,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 가톨릭 교회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시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시편에 나타난 역사적 접근 방식과 왕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형식 비판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시와 히브리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구별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매우 정교한 차별화이며 병렬성에 대해 숙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좁게 말하면 시편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숭고함, 영원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비공유 속성 등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전달 가능한 속성,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위대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청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는 곳이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개입해 달라고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청원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뢰의 노래와 감사의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가 성전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을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의 찬양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을 통해 당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네 번째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감사 찬양 간구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구두점을 찍는 네 번째 종류는 시편 1편과 같은 지시시편입니다. 찬양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고 감사하는 노래도 아니지만 칭찬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뜻을 세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율법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양한 종류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찬양 시편의 뚜렷한 모티프, 즉 찬양을 요청하고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신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청원의 모티브는 기본적으로 직접 주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즉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난 중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사를 칭찬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도록 선택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언론이 하려는 것은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사실상 죽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모든 입을 잠잠하게 하면 바위들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주소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도 부분이 있고 애도에 대해 매우 솔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청원에 들어가기 전에 불만에서 분위기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뢰 부분에서 성령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론을 얻었는데, 여기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문제에 부딪혔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2페이지에 루터의 신학자 멜란히톤에 대한 루터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칼빈의 정식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칼빈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은 16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칼빈은 불안과 두려움, 동요 속에서도 기도의 법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정시키는 빛을 찾을 때까지 억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믿음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끝까지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저했던 점은 그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읽은 내용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약으로 끝난다.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모호하게 생각해보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내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나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162번 항목의 요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부로 넘어갑니다. 기도와 Gunkel이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폭넓게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저주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애도시나 청원시가 50편이나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50명 중 35명은 단순히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를 징벌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끝날 무렵에 그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을 바위 등으로 때리려는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모욕적이며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모범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나는 내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학자적인 교황을 믿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데이터를 조사하고, 사랑으로 논쟁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배치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정리했다. 나는 그것이 건전한 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며, 윤리가 있으며, 그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나는 9가지 포인트를 나열했다. 나는 그것들이 매우 훌륭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신학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좋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궁극적인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출 시편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올바른 신학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청원의 요점 중 하나는 청원이 항상 송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양이 넘치며 결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과 함께합니다. 나는 이것이 욕과 시편 기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강하게 항의한다. 그것은 부당하다. 그건 불공평 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은 끝까지 찬양이 없습니다. 반면 시편 기자는 항상 찬양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88편의 흑양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편의 흑양입니다.

시편의 세 번째 책은 검은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다섯 권 중 가장 어두운 책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송영적입니다.

우리는 특정 시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요점은 그들이 항상 깊은 겸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편 3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아프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은 약과 의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시편 3편을 읽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씨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개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으로 끝나는데, 특히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으로 끝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통해 더 광범위한 축복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저는 일전에 Mike와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Hasidim과 Hasidic 사이의 비유였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 따르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곱슬머리를 가진 매우 정교회 보수적인 유대교 종파입니다. 랍비는 소방차가 집 방향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면 내 집이 아니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내 집이 아니냐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첫 번째 이유는 집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집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은 내 집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나쁜 기도입니다. 오 주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포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휴스턴을 응원할지 아니면 오일러스를 응원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오일러스는 무엇입니까? 텍사스.

아, 그래요, 예전에는 달라스에 있었죠. 텍사스 사람들은 원래 달라스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Seahawks를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홈팀을 응원해야 할까요? 암묵적으로 나는 다른 팀이 패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오한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접근 방식을 광범위하게 살펴본 다음 특정 시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븐리그 부츠로 아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시편 전체에 대한 느낌을 얻었으니 이제 개별 시편, 다양한 종류의 청원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의 첫 번째 시편은 바로 첫 번째 애도 시편, 즉 간구 시편인 시편 3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이 우리를 데려갈 천상의 도시에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 개찰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에 대한 윤리와 기쁨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윤리의 정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시편에 들어갈 만큼 영적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간구에서 보았듯이, 부정된 손과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나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시편 2편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입니다. 대관식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네 유업으로 이방인을 주리라. 땅 끝까지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그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국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기름부음받은 왕의 통치를 배척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훈훈한 구름을 타고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을 가져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무지개와 햇빛과 함께 그렇게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소풍을 가는 동안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 주여,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으며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동반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믿음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드리는 아침 기도인데 성전이 보입니다.

그는 거룩한 산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염두에 두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저녁기도인 시편 4편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쌍입니다. 하나는 아침기도입니다. 하나는 저녁기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에게 반역하는 것은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압살롬의 반역과 온 나라가 까닭 없이 그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그 자신의 리더십이 그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그의 나라에서 그를 거부하고 그가 어떻게 그것과 투쟁하는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를 배반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의 영적 투쟁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배신하는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그럼, 가서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더 많이 할 일은 모든 메모를 검토하는 것보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시편에 머물면서 번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귀하의 메모에 없는 내용이라면 아마도 귀하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나중에 다시 검토할 때 메모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 첨자와 역사적 접근 방식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규범적인 학문적 학문에 비해 위 첨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의 구성을 촉발한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편 14편 중 하나입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무엘서를 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는 그의 도망 이야기, 즉 그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읽으면서 제가 말한 모티브를 생각해 보세요. 주소는 어디에 있나요? 애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원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신학을 더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부분을 식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묻겠습니다. 애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원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칭찬이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아요. 그래요.

내 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느니라 하지만 당신은 내 주위의 방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나는 누워서 잤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존재함(I Am)'이 나를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사방에서 나를 대항하여 집결한 수만 명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구원은 I Am에게 속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감독을 위한 추신은 시편 4편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 3편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올라가자.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누군가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시편 3.5편, 즉 3.5편을 가장 열렬히 기념했습니다. 나는 누워서 잤다. 나는 존재(I Am)가 나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크로스컨트리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가 누워 자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절에 일어났습니다. 성금요일,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그는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그를 불드셨기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David와 그것이 David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윗이 그의 가장 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어났다. 그것은 온 나라가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잠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서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우리만큼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우리를 4세기로 데려갑니다. 매일 12편의 시편을 낭송하는데,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아침 기도할 때 12편, 밤에는 12편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매일의 습관이 되어 이른 아침 시편 3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념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사막의 교부들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쁜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3편을 낭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만은 시편 63편을 계속해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시간에 시편 140편과 다른 기도로 끝냅니다. 이것이 동서양의 다양한 수도원 기반과 변형이 있는 전례 시간의 기원이자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육체 노동 중에 시편을 끊임없이 낭송했습니다.

팔라디우스는 오후 3시경에 서서 각 감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성한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높은 곳의 낙원, 즉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하루 중 주된 식사를 하거나 좀 더 금욕적인 형태로 하루의 단일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주 생각하는 하나의 취향일 뿐이고, 더 독립적인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성공회에 대해 즐기는 것 중 하나는 제가 매우 역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튼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배 시간 동안 하루에 네 번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잘,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야망이다. 적어도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sitzenbuch 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이것이 시편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정되는지 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시편 1편, 2편이 있고 여기 3편, 4편, 그리고 이 모든 애도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8편에서 첫 번째 찬양시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찬양시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돌아가자. 우리는 가지 않을 거예요, 176페이지로 가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 그냥 가서 시편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이것이 왕의 기도임을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단지 Mr. Everyman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3절을 제안합니다. 그 구절은 당신이 나를 둘러싸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내 주변의 방패는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 위에 내 머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것이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Landon,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러하리라(6절). 나는 나를 치러 오는 수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저 사람은 Mr. Everyman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군사 장면입니다.

내가 그것을 은유가 아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은유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 첨자는 또한 나를 방해합니다. 나에게 Mr. Everyman이라는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하자면, 내 상상 속에는 10,000명의 병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왕일 가능성이 더 높고 압살롬의 난과 매우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윗첨자를 통해 요청하는 것은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하 14장부터 16장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투는 17장과 18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망쳤을 때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물론 우리가 살펴볼 다음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David의 경력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밋세바와 죄를 짓고 남편을 살해한 일로 인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통찰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잠든 것 같습니다. 그는 펑크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는 음란한 일을 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왕좌의 상속자가 다음 사람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암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동생을 강간하고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 성적 열정을 갖고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다음 왕위 계승자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올바른 과정을 거치고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신 잘못에 대한 복수를 자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는 금지된 복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압살롬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망명한다.

그리고 결국 David는 그를 다시 초대합니다. 명확한 고백이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합니다. 압살롬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입니다.

그는 정말 사악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싶어한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집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어떻게 프락킹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위에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이 시작된 고대 수도인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거기서 내려가나요? 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 제사를 핑계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해 완전히 기만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내려갑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의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과 희생을 드리는 동안 사자를 보내어 자신이 왕이며 이제 헤브론의 왕임을 왕국에 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와 비슷하고 그들이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동안 대부는 모든 사람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물을 바치는 동시에 다윗을 약화시키고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며 그 나라의 지식인 1인자인 길르앗 사람 아히도벨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제가 아는 한 밋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밋세바의 아버지인 일리움의 아버지입니다. 내 생각엔 그는 결코 데이빗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과 공모하여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사람이라고 연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점들이 그들 사이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모사가 되었고 다윗은 그를 선지자와 동등하게 여겼다고 말할 정도로 모사로서 훌륭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스 교수진에 있었을 때 학장과 상담사가 있었고 매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징계위원회에 있던 지 1년이 되었는데, 한 학생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학장에게 데려오기 전에 카운셀러는 11~14개의 질문을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느 것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일이나 14일에 이르면 그가 폭발하면 유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말했듯이,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이르렀고 그 학생은 완전히 화를 내며 일어서서 이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는 아히도벨을 그렇게 본다. 그는 그만큼 훌륭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하다가 아히도벨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락을 물리치셨으므로 그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오면 아버지를 살해할 뿐 아니라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락은 네 아버지의 후궁을 빼앗아 왕궁 옥상에서 그들과 동침하라는 것이니라. 즉, 뉴스 방송이 그것이다.

당신은 그렇게합니다. 이 반란이 진짜이고 당신이 아버지의 코에 악취를 풍겼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사람들의 악, 간음, 살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국민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인데, 그는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오시는 모든 분들의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를 선출했습니다.

당신이 아닌 전형적인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닙니다. 오른쪽.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맞서고 있는 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군사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우리가 그 역사를 읽고 이 전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 정의, 불의, 힘과 의 등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쟁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쿠데타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정탐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독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있을 경우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도시에서 도망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도시를 떠날 때 이러한 다양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다지 밀접하지는 않지만 유형론의 일부입니다. Gittite Ittai가 완전한 충성심으로 그와 합류한다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 곧 골리앗이 나온 가드 출신 가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백성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의 엄청난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은 직업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때때로 정치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보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중,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제사장 사독입니다.

그리고 사독을 만났을 때 사독에게 너희는 짐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냐? 그 말은, 나에게 예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자주 일어나는 전투에서 나에게서는 나를 지도해 줄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지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선견자입니까? 나에게 예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전투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거기로 돌아가서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당신은 아비아달이라는 다른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고,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David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대첩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독이 그의 눈과 귀가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 주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방법은

사독이 이 두 함대를 통해 다윗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이 빠른 이 아들들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와인이군요. 오른쪽.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서 지금 요단강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독을 돌려보내고 스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군이고 적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가 산 정상에 오르면서, 그가 산의 여러 단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는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히도벨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뛰어난 또 다른 보좌가 후새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새야, 너는 여기서 나에게 짐만 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압살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성으로 들어가듯이 후새도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후샤이, 후샤이를 개발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영리해요.

그는 시작하고 말합니다. 왕 만세. 물론 그는 다윗을 의미하지만 압살롬은 그가 다윗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가 하는 말을 다 자기를 위한 칭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윗에게도 적절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자존심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지 못합니다.

어쨌든, 아히도벨, 그의 조언은, 당신의 아버지가 약할 때 그는 노출되어 있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제대로 조직된 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를 공격할 시간이다.

후세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조언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활한 전사입니다.

그가 당신의 군사 몇 명을 죽이면, 그들은 모두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두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고하는 것은 너희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 위에 서서 눈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에 있다면 우리는 밧줄을 구해 성벽을 허물겠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사람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그들의 계략을 더 좋아합니다. 아히도벨은 참 밝습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조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코스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그분은 그 권고의 결과로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이해하시나요? 시편만 읽고 기도했다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후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찬양하지 않지만, 이 섭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돕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내 딸이 좋아했던 성서 이야기 중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 한쪽 끝에 섰고, 그녀는 거실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검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골리앗이고 이것은 나의 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투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음, 우리는 방 구석에 행주와 탁구공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 구석으로 가서 탁구공 다섯 개를 집어들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나는 골리앗이고 이것은 나의 검이다. 나는 당신에게 전투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뒤 수건을 휘둘러 탁구공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넘어지면 그녀가 달려와서 나에게 뛰어들었고, 가장 좋았던 점은 내 머리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로 성공했을 때, 그녀는 대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검을 휘두르고 수건과 탁구공을 가져갔습니다. 흥미롭게도 데이빗은 다섯 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화해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스윙도 하지 않았고, 탁구공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의사의 칼에 맞서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사에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얻고 있다는 신학이 보이시나요? 그것이 다윗의 수단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후새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달라스의 한 학생이 이 시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데, 그는 위침자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심오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암으로 죽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단을 쓰지 않고 치료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필요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안입니다. 괜찮은.

이제 우리는 시편 자체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위 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할 것입니다. 좋아요.

괜찮은. 먼저 시편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곧바로 방망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애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원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시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 내가 속였어. 뭐라고요? 나는 속였다고 말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았다.

아, 글썄요, 저는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 때 항상 그렇게 해요. 괜찮은. 그럼 그렇게 했다면, 좋아요, 계속하세요.

애도는 1절과 2절입니다. 애도입니다. 내 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래서 그것은 애도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A를 받았어요. 그리고 2절도요. 예.

그 일환으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절과 2절을 얻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3번은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응. 하지만 당신, 나는 당신이 방패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신은 종종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된 신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습니다. 그건 신뢰 구간인데 넌 나를 지켜주는 방패야.

좋아요. 자신감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싶나요? 적어도 6번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가 옳아.

좋아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네가 옳아.

3부터 6까지가 신뢰 구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7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청원.

우리는 청원서를 받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슬픔의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적을 처벌하십시오. 알다시피, 그들의 뺨을 때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축적인 시편과 함께 이중의 청원을 다루었습니다.

관찰은. 그리고 우리는, 그래,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구원이다. 거기에 칭찬이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이해할 때, 나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평행법을 보는 것 외에도 그것은 동의어 평행법에 매우 가깝습니다. 적들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즉, 요점은 그들이 적일 뿐만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확대는 내 적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 말합니다. 거기서 당신은 그들의
 불신과 기름부음받은 왕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기름부음받은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기름부음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배은망덕함,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람, 그들에게 그들의 왕국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까지를 준 이 왕은
 배은망덕함으로 그들을 위해 이 모든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그것의 파토스와 그것의 유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나타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들의 왕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른 청원과 달리 그는 적들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군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도는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강한 질책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이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부였기 때문입니까? 내가 아는
 건 코디, 그가 그들의 패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시편의 다른
 부분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적의 죽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백성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댓글인 것 같아요. 예, 그가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3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 주위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큰 소리로 외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전투와 위험 속에서도 잠에 든다는 자신감을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내 말은, 온 세상이 당신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워서 잠에 듭니다.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말할 때 이것은 둘 다 you, I Am이고, 그런데 I am이 일곱 번 사용되는데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당신, 나는 존재하고 당신은 내 주위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보병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그러하며 그의 영광은 그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역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 그에게 영광을 주는 것, 그의 승리에 따른 사회적 존경. 당신은 밀려드는 적들 위로 내 머리를 들어 올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베푸실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데, 그 확신은 하나님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신이라면, 그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당신이 왕이시라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무엘을 미치광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평생을 걸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요점은 제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위대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이 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나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듣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복소리에 맞춰 걷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달라졌음을 압니다. 이제 내 요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그의 전 생애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사악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적인 일입니다. 그는 이것에 평생의 위험을 걸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마음이 바뀌어서 당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거의 악마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가장 종교적인 감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은 '미안해요. 나는 마음을 바꿔서 떠났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그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날 믿어. 그것이 우리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그것을 통과하는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신했고, 여기 해발 2,500피트의 거룩한 산 꼭대기에 방주로 표현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그림을 얻었습니다. 여기 그는 해발 2,500피트 아래 요르단 열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가장 낮은 곳, 말 그대로 땅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가장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모두는 과학에 대해 알고 있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는 놀랍게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내 말대로 그 사람도 눕고 나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불드심iero다.

귀하의 메모에는 페이지 하단의 178페이지에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뢰 속에서 안전하게 잠드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독특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바로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너는 잘 때에라도 이것을 마음 에 삼가 라 환난 날에 지킬 사람이 없느니라

정말로 당신 편에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 잠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데이빗이 있습니다. 그는 자러 갈 것입니다.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아브넬과 함께 잠에 들었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훔쳤습니다. 뭐라고요? 학생의 목소리.

요압, 요아시야, 당신은 그의 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가 자고 있는 동안 캠프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항아리와 창을 가져갔습니다. 즉, 사울에게 네 생명과 죽음이 내 손에 있으니 물항아리와 창이 내 손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창을 돌려주었지만, 그를 지탱할 물항아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몰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에게서 창과 물항아리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위대함, 저주의 기도로 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믿음, 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시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Cicero는 잠에 들었고 Jao는 그를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은 주변에 모든 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수면제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엄청난 믿음이네요. 나 이거 굉장히 좋아. 그런 다음 청원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 전달이라는 단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포함사항이 됩니다. 대적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는 '웁으니 나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 탄핵 기도에서 그가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적의 뺨을 치십시오. 내가 이해하는 바는 그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적의 뺨을 칠 수 있다면 그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방어 수단을 모두 빼앗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가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를 부러뜨리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공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디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어떤 공격도 하지 않게 만들고 무력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찬양과 구원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구원은 I Am에게 속합니다. 그는 이러한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소원, 즉 사람들을 위한 소원,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고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축복이 당신과 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포스트스크립트에 전달되고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자, 부자, 부자.

글쎄, 사무엘한테서 그걸 돌려받자. 응.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놓칠 것입니다. 투영되는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적층을 투영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위 첨자를 떼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악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석상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14회기, 청원시편, 시편 3편입니다.